

내야, 부상·타격 부진에 발목... 세대교체 다시 속제로

TIGERS

결산(中) - 야수진

최형우, 타율 0.354 시즌 타격왕
나지완·터커, 지난해 부진 훌훌~
외야, 장타력 살아나며 성공 시즌

내야, 김선빈·류지혁 등 줄부상
박찬호·유민상 타격 기대 못미쳐
수비 세밀함 떨어지고 선수간 실력차
최원준, 자리 잡으며 내년 기대감

온도 차가 컸던 야수진, 세밀함도 아쉬웠다.
KIA 타이거즈는 '무관'으로 끝날 수 있었던
2020시즌 최형우 덕분에 체면치레를 했다.

최형우는 마지막 주 전개된 '타격왕' 싸움에서 역
전극을 연출하면서, 타격 1위(0.354)로 시즌을 마
감했다.

꾸준하고 강렬한 타격으로 KIA 타선을 이끌었
던 최형우를 중심으로 한 '파워히터' 들은 윌리엄스
감독을 웃게 했다.

터커가 장타 몰음표를 지우고 타이거즈 외국인
사상 첫 '30홈런-100타점' 기록을 세웠고, 나지완
도 17개의 홈런으로 92타점을 수확하면서 지난해
부진을 털어냈다. 타이거즈 프랜차이즈 최다 홈런
타이틀도 차지한 나지완은 특히 수비까지 풀타임
소화를 하면서 윌리엄스 감독의 테스트를 통과했
다.

윌리엄스 감독은 올 시즌을 돌아보면서 "많은 이
들이 나지완이 이런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예상하



나지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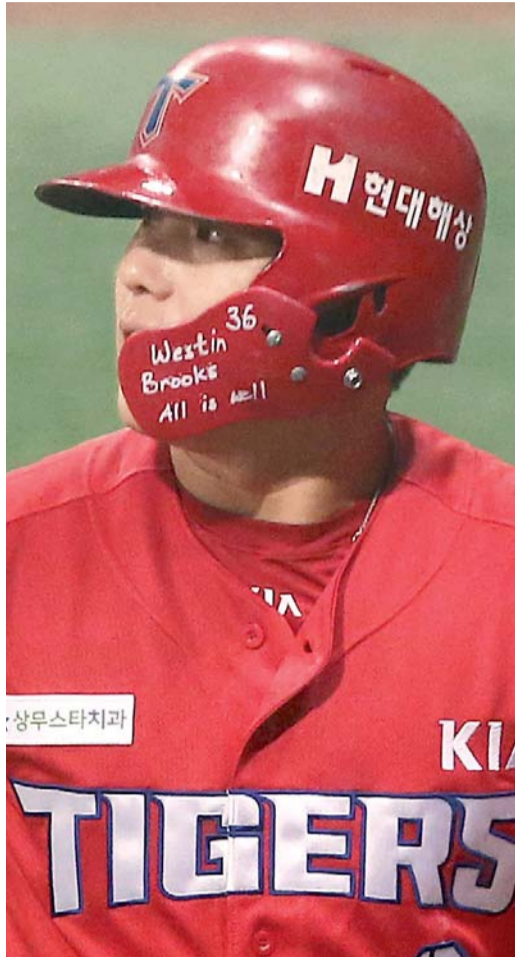
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꾸준함과 리더십
도 보여줬다. 1년 내내 건강하게 뛰었다. 그런 점이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나지완의 이름
을 언급했다.

최형우가 지명타자로 빠지면서 나지완-터커가
좌우를 책임진 외야는 화려 업그레이드에 성공했
다.

여기에 놀라운 성장세를 보인 최원준이 중원 전
쟁에서 생존해 KIA 외야 공격력을 극대화했다.

외야의 공격에는 무게가 실렸지만, 수비의 세밀
함은 떨어지면서 2020시즌 외야는 상승과 하락을
동시에 보여줬다.

내야에는 고민이 겹겹이 쌓였다.



김선빈

KIA는 안치홍 대신 김선빈을 2루로 옮기고 박찬
호를 유격수로 내세워 새로운 '키스톤 콤비'를 구성
했다.

하지만 우려대로 김선빈은 올 시즌에도 잇단 부
상으로 풀타임 출전에 실패했고, 윌리엄스 감독이
강하게 키운 박찬호는 타격 지표에서 최하위를 찍
었다.

'부상'은 내야의 가장 큰 고민이었다.

트레이드로 영입한 류지혁도 김선빈과 부상 바통
터치를 한 지 1주일도 안 돼 부상병이 됐다. 후배들
의 이어진 부상 속 알토란 같은 활약을 해준 나주환
도 부상상으로 시즌을 일찍 마감하는 등 내야는 부상
에 신음했다.



최원준

'확실한 타자' 김선빈을 제외한 내야진의 실력 차
도 컸다.

박찬호와 함께 처음 풀타임을 소화한 유민상의
성적도 부족했다. 65타점은 올렸지만 타율이
0.246에 그쳤고, 14차례 병살타를 기록하면서 박
찬호와 팀 내 1위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수비의 견
고함이 아쉬웠다. 크고 작은 수비 실수가 경기의 흐
름을 바꾸는 결정타로 작용하기도 했다.

공격력을 극대화할 KIA의 스피드도 부족했다.

지난해 도루왕 박찬호가 타격 부진으로 나갈 기
회를 많이 만들지 못했고, 15개의 도루로 시즌을
마감했다.

지난해 39도루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수치지



박찬호

만 올 시즌 팀 내 1위라는 점에서 KIA의 부족했던
스피드를 체감할 수 있다. KIA는 팀도루 47개, 최
하위를 기록했다.

야수진의 세대교체는 몇 년간 이야기되어왔던
KIA의 과제였다. 올 시즌에도 그 격차를 많이 줄
이지는 못했다.

그레도 애를 태우던 최원준이 마침내 자신의 야
구를 찾았고, '신예 선수'들이 주전들의 줄부상으
로 출전 기회를 얻어 '자의 반 타의 반' 경험을 쌓은
부분은 긍정적이다.

올 시즌 실패가 내년 시즌 밑거름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류현진, 2년 연속 사이영상 후보

올 12경기 방어율 2.69...AL 마에다·비버와 경쟁 12일 결과 발표

'코리아 몬스터' 류현진(33·토론토 블루제이스·사진)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최고 투수에게 주는 '사이영상' 최종 후보에 2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미국야구기자협회(BBWAA)는 3일(한국시
간) 아메리칸리그 사이영상 최종 후보 3인에 류현
진과 일본인 투수 마에다 겐타(미네소타 트윈스),
세인 비버(클리블랜드 인디언스)를 뽑았다.

류현진은 올 시즌 12경기(67이닝)에서 5승 2
패, 평균자책점 2.69, 탈삼진 72개를 기록하며 토
론토의 에이스 역할을 다했다.

비버는 올 시즌 12경기(77.1이닝)에 출전해 8
승 1패 평균자책점 1.63, 탈삼진 122개, 마에다는
11경기(66.2이닝)에서 6승 1패 평균자책점
2.70, 탈삼진 80개의 성적을 거뒀다.

최종 수상자는 12일 발표한다.

류현진은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에서 뛴 지난해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투표에서 1위표 1장, 2위표
10장 등 88표를 얻어 제이컵 디그롬(뉴욕 메츠)
에 이어 단독 2위 자리에 올랐다.

사이영상 투표에서 1위표를 받은 건 한국은 물
론 아시아 출신 선수로는 처음이었다.

기대를 모았던 김광현(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
의 한국인 선수 최초 신인상 수상은 아쉽게 무
산됐다.

BBWAA는 내셔널리그 신인상 최종 후보 3인
으로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내야수 알렉스 브,
샌디 에이고 파드리스 내야수 제이크 크로넬워스,
밀워키 브루어스 투수 데빈 윌리엄스를 뽑았다.

김광현은 올 시즌 8경기에 등판해 3승 1세이브
39이닝 탈삼진 24개 평균자책점 1.62를 기록했지
만, 고배를 마셨다.

내셔널리그 사이영상 후보로는 디그롬, 트레버
바워(신시내티 레츠), 다르빗슈 유(시카고 컵스)
가 이름을 올렸다.

디그롬은 2018년부터 3년 연속 사이영상 수
상을 노린다.

아메리칸리그 신인상 최종후보는 시애틀 매리
너스 외야수 카일 루이스, 시카고 화이트삭스 외



야수 루이스 로버트, 휴스턴 애스트로스 우완 투
수 크리스티안 히비에르가 선정됐다.

내셔널리그 최우수선수상(MVP)은 무키 베츠
(로스앤젤레스 다저스), 프레디 프리먼(애들랜타
브레이브스), 매니 마차도(샌디에이고)가 경쟁한
다. 아메리칸리그 MVP는 D.J. 레메이휴(뉴욕 양
키스), 호세 아브레우(시카고 화이트삭스), 호세
라미레스(클리블랜드)가 최종 후보로 뽑혔다.

아메리칸리그 올해의 감독상 최종 후보는 팀을
월드시리즈로 이끈 탬파베이 레이스의 케빈 캐시
감독과 류현진의 소속 팀인 토론토의 찰리 몬토요
감독, 화이트삭스 리 렌테리아 전 감독이 이름을
올렸다.

렌테리아 전 감독은 팀을 12년 만에 포스트시즌
진출로 이끌었지만, 최근 경질됐다.

화이트삭스는 최근 명장 토니 라루사 감독과 계
약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연합뉴스

KLPGA, 달아오르는 상금왕 경쟁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 내일 개막...장하나, 1위 김효주 맹추격

5일부터 인턴 영종도 스카이72 골프&리조트 오
션코스(파72)에서 나흘 동안 열리는 한국여자프
로골프(KLPGA)투어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
(총상금 15억원)에 걸린 우승 상금은 무려 3억원
이다.

대개 2억원이 넘지 않는 KLPGA투어 대회 우
승 상금보다 1억원 이상 많은 우승 상금이 걸린 대
회가 시즌 최종전 직전에 열리는 만큼 상금왕 경쟁
에서는 결정적인 변수다.

2위 박현경(20)을 2억원 차이로 따돌리고 상금
랭킹 1위를 달리는 김효주(25)가 하나금융그룹 챔
피언십 우승 상금을 챙긴다면 상금왕 경쟁은 그대
로 끝난다.

우승하면 누적 상금 10억원을 넘기는 김효주는
하나금융그룹 챔피언십에 이어 열리는 SK텔레콤
ADT 캡스 챔피언십에 출전하지 않아도 상금왕이

된다.

다상왕과 평균타수 1위도 균한다.

작년보다 10m 이상 늘어난 비거리에 정교한 아
이언샷과 세계 최고 수준의 쇼트게임 능력에 빼어
난 퍼트 실력을 갖춘 김효주는 하나금융그룹 챔피
언십에서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다.

그러나 추격자들 역시 3억원의 우승 상금을 추
격의 발판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박현경은 물론 임희정(20), 유해란(19), 박민
지(22), 이소영(23), 장하나(28) 등은 하나금융
그룹 챔피언십 우승이면 단숨에 김효주를 넘어서
거나 적어도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다.

시즌 최종전 SK텔레콤 ADT 캡스 챔피언십 우
승 상금이 2억원이기에 산술적으로는 김효주에 5
억원 뒤진 선수도 역전할 수 있다.

특히 장하나(28)의 기세가 주목된다.

충장중, 광주 추계 중학 야구대회 우승

최근 끝난 2020년 광주 추계 중학교 야구대회에
서 충장중이 우승을 차지했다.

함평야구장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올해 춘계 대
회 우승팀 충장중을 포함한 4개 팀이 참가해 리그
전으로 진행됐다.

첫 경기에서 동성중을 7-2로 꺾은 충장중은 이
어 무등중을 13-6으로 제압하고 연승을 달렸다.
마지막 진흥중과의 경기에서는 6-7로 패했지만,
최소실점(15실점)에서 앞서 우승을 차지했다.

역시 2승 1패를 기록한 진흥중은 28실점을 하면
서 2위가 됐다.

한편 제2회 정연한방병원장배 초등학교 야구대
회 겸 2020년 추계 초등학교 야구대회는 9일 분량
구장에서 개막한다. 대회는 13일까지 5일간 리그
전으로 펼쳐질 예정이다.

◇대회 수상자
▲최우수선수상 : 문태군(충장중) ▲우수투수



추계중학교 야구대회 우승을 차지한 충장중 선수단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 제공>

상 : 임정민(충장중) ▲타격상 : 김근화(동성중·
11타수 8안타 0.727) ▲최다도루상 : 김의철(동성
중·3개) ▲최다타점상 : 고도영(충장중·6타점) ▲

감독상 : 정진우(진흥중) ▲미기상 : 서영준(진흥
중) ▲감독상 : 나갑남(충장중) ▲지도상 : 조승우
(충장중 부장) /김여울 기자 wool@